

# 홀트소식

SPRING 2022 VOL.204





## 봄 이야기

제4회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손동민·이샘물 부부의 특별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9p 계속)

## 가족을 찾아주고

- 04 거리의 소년이 우주공학자가 되기까지
- 07 산(山)을 닮은 나눔

## 가족을 지켜주고

- 09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12 mom편한 원데이클래스
- 14 자르같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 15 12살 은영이에게 소리를 선물해주세요

## 가족이 되어주는

- 16 졸업,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요!
- 18 함께 그리는 꿈
- 20 자립준비청년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 22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주는 응원

## 나눔 스토리

- 24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 26 여러 손길이 모여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줍니다
- 28 입양대기아동을 돕는 희망트리
- 30 2021 운영결산보고
- 32 HOLT NEWS

통권 | 204호·계간 발행일 | 2022년 4월 15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북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스티브 모리스 이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클럽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부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 홀트 후원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완연한 봄입니다. 햇살이 밝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계절입니다. 홀트에서만 37년 근무한 저는 작년 6월 회장으로 취임하여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1985년 처음 입사하여 입양업무를 담당하며 복지 안전망이라고는 전무했던 그 시절, 홀트에서 아낌없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가정을 찾아주는 진취적인 일을 하고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하게 아픈 아동에게도 입양부모가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비영리 기관이 생겨났고 다양한 색깔의 기관들 속에서 홀트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기관의 시작이었던 입양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홀트의 유전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홀트아동복지회는 시설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 한부모지원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와의 관계를 통한 정서적 성장을 돕습니다. 시설퇴소 후에도 경제·취업·기술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었지만,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보면 아주 절박한 사연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의 어려움에 후원자님의 관심을 씨실과 날실로 엮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아동과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 절박함을 대신 짊어지려고 할 때, 홀트아동복지회의 역사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이수연

# 거리의 소년이 우주공학자가 되기까지

CBS '새롭게 하소서' 스티브 모리슨 이사 인터뷰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스티브 모리슨 이사(이하 스티브). C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전했는데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되고 한국입양홍보회를 설립, 홀트아동복지회 이사가 되기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축복같았던 홀트에서의 시간

5살에 고아가 되어 두 살 어린 동생과 길거리를 떠돌던 스티브. 동네 상인이 동생을 키우겠다고 데려가 하나뿐인 동생과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스티브는 동생이라도 거리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걱정을 덜었지만, 이별의 아픔은 컸습니다. 동생과 헤어지고 보육원에서 지내던 스티브는 아픈 다리를 수술할 수 있다는 소식에 홀트일산복지타운(前홀트복지원)에 입소하였는데요.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만 13살까지 지내던 스티브는 기적적으로 지금의 입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남 2녀의 친생자녀를 둔 입양부모님은 스티브를 입양하기 2년 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네 번째 자녀를 입양했는데요. 이후 미국 홀트 소식지에 실렸던 '가정이 필요한 아이' 코너에서 우연히 스티브를 본 아버지는 눈을 떼지 못하였고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는 만 14살이 되기 직전, 운명처럼 모리슨 家 5번째 자녀로 입양하였죠.



1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원우들과 찍은 사진  
2 CBS '새롭게 하소서' 갈무리

##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의 사랑

미국으로 온 첫날, 한국에서 온 스티브를 위해 어머니는 서툰 솜씨로 김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재료가 달라 한국에서 먹던 맛과는 달랐지만, 자신을 생각하며 열심히 만들었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스티브. 그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였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낯선 땅에 금방 적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는 흥미 없던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며 싫어했던 수학도 머리에 쑥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닐 암스트롱을 보며 우주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항공 우주 공학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에 입학하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부모님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며 어렵게 대출까지 받아 그의 꿈을 지지해주었고, 스티브는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되어 인공위성 관련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받았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다

친생자녀 딸 셋과 입양자녀 아들 둘이 있는 스티브. 첫째 아들은 자폐 기질이 있었고 14살에 입양한 둘째 아들은 다른 환경에 많은 방황을 했었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으면서 많은 대화와 기도를 통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어 직장도 다니고 어머니를 가장 많이 위해주는 아이로 성장했으며, 둘째 또한 가정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평생 삶으로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아이들이 잘 성장해 주어 그저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이 왜 거리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왜 동생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왜 미국으로 입양 가야 하는지 신에게 수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린 결정 중 제일 잘한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 두 번째 너의 어머니를 만난 것, 마지막은 너를 만난 것이야.’ 물론 저희 다섯 남매를 똑같이 사랑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덕분에 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말끔히 다 씻을 수 있었죠.”

홀트아동복지회 이사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주었는데요. 해리 홀트·버다 홀트 부부의 딸이자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이었던 말리 홀트 여사가 소천하기 전, 스티브에게 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오랜 고민 끝에 이사직을 수락한 스티브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했던 홀트의 정신을 이어, 가정 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글 전략기획팀 한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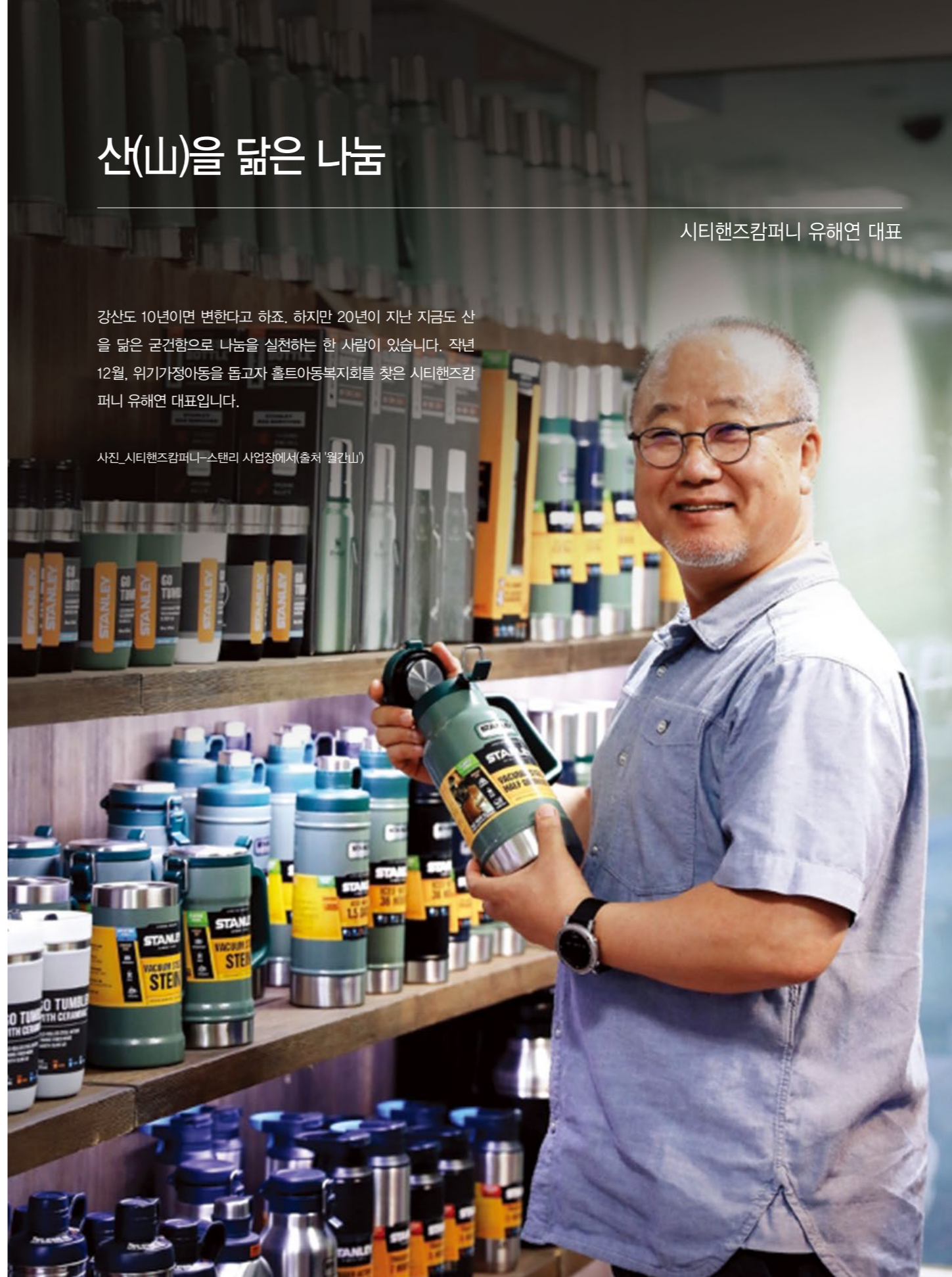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산(山)을 닮은 나눔

시티헨즈컴퍼니 유해연 대표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산을 닮은 굳건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위기가정아동을 돕고자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은 시티헨즈컴퍼니 유해연 대표입니다.

사진 시티헨즈컴퍼니-스탠리 사업장에서(출처 '월간산')



젊은 시절 알피니스트(Alpinist, 높고 험난한 산을 대상으로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등산가)를 꿈꿨지만, 산에 대한 열정은 가슴 한 편에 접어두고 학사 장교를 마치자마자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 근무를 시작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 경력을 쌓았고, 성공과 실패를 교차하며 지금의 시티헨즈컴퍼니를 세웠습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시티헨즈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스탠리 보온병을 소개하였으며, 올바른 아웃도어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유 대표는 스탠리 보온병을 직접 들고 현장에서 유저들을 만나는 두 발 마케팅으로 '스탠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나눔은 '커다란 산'을 향합니다. 한국의 알피니스트를 위해 여러 지원을 했고, 서울산악조난구조대 자문위원으로 대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후원, 산악 전문지에 한국의 대표적인 산악인들을 기획 취재하며 함께하는 등 산악계의 큰 후원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나눔은 '품이 넉넉한 산'을 닮았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 된 성모 군과 중학교 3학년이 된 영모 군, 두 아들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맞아 가족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였고, 입양가정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 성모, 영모 두 아들과 3번째 지리산 종주

입양가족모임 '홀트한사랑회'의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산'을 꿈꿉니다. 2003년, 가족을 기다리는 아기들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 대표의 두 아들은 홀트 아동복지회가 해외아동지원을 시작하던 2010년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결연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위기가정 아동과 시설에서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세상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함께하며 더 큰 나눔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홀트가족으로서 산처럼 우직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시티헨즈컴퍼니 유해연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홀트아동복지회는 귀한 사랑을 전하는 선한 통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클 나눔기획팀장 박꽃송이



▲ 위기가정아동지원 후원금 전달식

##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4회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관공서에서 가정방문 시, 아이 아빠는 아이를 보러오지 않냐며 유부남이냐는 무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의 잘못으로 몰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추후 다른 집 아이의 잘못된 게 밝혀졌는데도 편견 때문에 이사갈 수 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엄마가 아빠 없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했다’며 미혼한부모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위 내용은 일상 속 미혼한부모가 겪는 차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sup>1)</sup>에서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가 협찬한 이번 공모전은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총 80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온라인 국민심사 및 전문가 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션그래픽,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작품 중 대상을 수상한 손동민·이샘물 부부의 특별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1) 2021. 9. 16 ~ 9. 22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조사

부부는 예전부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년 4월, 스몰웨딩으로 결혼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미혼한부모 아기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결혼반지도 수익금 일부를 미혼한부모가정을 후원하는 곳에서 맞췄다고. 부부의 가치관이 서로 닮아있어 가정의 방향성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쪽으로 이끌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부부가 평소 즐겨보던 일상 브이로그 유튜버 '오마미야'와 홀트가 협업하여 진행한 영상을 보고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 이샘물 님(이하 이) |** 우리가 늘 생각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공모전은 처음 도전하는 거라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수상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부부의 연을 맺은지 곧 1주년이 되어가는데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만든 작품이 상을 받아서 더욱 특별한 선물이 되었어요.

**| 손동민 님(이하 손) |** 그동안 우리 부부가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갔잖아요. 그에 대한 확신을 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부부가 함께 만든 작품 '용기'는 미혼한부모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용기가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지켜내는 용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주제가 나오기까지 남편 손동민 씨의 의견이 많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 손 |** 친어머니께서 미혼모로 저를 낳으셨고 제가 6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후 지금 부모님께 입양되었는데요. 친어머니께서 투병 중에도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저를 맡길 곳을 엄청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 내려 노력하신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어요.



영상을 만드는 동안 손동민 씨는 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 더 느끼고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낸 미혼한부모들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다고. 아내 이샘물 씨는 평소 남편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 |** 남편 친어머니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시어머니께도 입양을 결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편을 키워 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남편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마음을 지금 부모님께 표현하면 혹시나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고요.



**| 손 |** 어머니께 영상을 보여 드렸는데 '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느끼셨대요. 막상 어머니와 이야기 나눠보니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고, 수상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 입양가정 둘 다 저한테 해당하잖아요. 친어머니, 입양부모님 모두 제 소중한 삶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혼한부모가정 자녀, 입양가정 자녀도 나중에 자랐을 때 분명 저처럼 본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멋진 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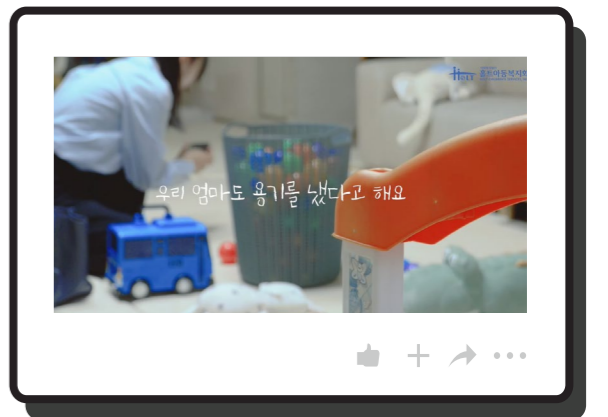
글 전략기획팀 우은영



▲ 작품설명하는 손동민 씨

##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공모전

### 대상작 용기



\* 수상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mom편한 원데이클래스

HOLT공유공방 '가치만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HOLT 공유공방 '가치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들은 공간을 활용하여 기술훈련, 상품개발, 제작할 수 있으며 강사로서 역량을 갖춘 한부모는 가치만들 강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강의진행이 가능한 자신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하며, 관련 자격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년 하반기, 가치만들 강사를 모집하여 총 9명의 한부모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강사들은 보호종료아동·청소년 대상 강의,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 수련회 대상 강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LOTTE GRS 임직원을 대상으로 'mom편한 원데이클래스'를 기획하여 2명의 미혼한부모가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150명의 임직원은 사전에 베이킹과 수공예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키트를 수령받아 클래스를 수강하였습니다. 베이킹 분야는 제과전문점 '지벨레르'를 운영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 선정되어 오레오케이크와 코하쿠토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수공예 분야는 양초공예전문점 '샬리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 선정되어 캔들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수강생으로 참여한 LOTTE GRS 임직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한 원데이클래스에 매우 만족하며 가치만들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들이 더욱 힘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주었죠.

"미혼한부모분들을 강사로 만나게 되니 더 멋있고 반갑네요.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로, 어엿한 사회인으로 굳건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미혼한부모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을 짊어지며 아이를 책임지고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미혼한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세상이 차가운 시선으로 보더라도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한 미혼한부모 강사는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어서 대본을 작성하고, 촬영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클래스가 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고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클래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치만들을 통해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한부모들이 재능의 전문성을 더욱 함양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까지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정지수



## 가치만들

클래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치만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키트 유료제공이 가능합니다.

문의 02-331-7083 한부모지원센터

## 자르갈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몽골 한부모가정 아동 의료비 지원 후기

### 갑작스러운 뇌전증이 자르갈의 밝은 미소를 빼앗아 갔어요

미소가 예쁜 13살 자르갈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엄마와 어린 두 명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르갈의 엄마는 세 아이의 양육을 포함한 모든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죠.

4년 전부터 자르갈은 시야가 흐려지며 바로 앞에 있는 사물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기를 1년, 각종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자르갈의 병명은 '뇌전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간질로 알고 있는 뇌전증을 진단받기까지 자르갈과 엄마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련과 발작 증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일어날 정도로 빈도가 잦아졌고, 수업 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갈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졌습니다. 다니던 학교마저 가지 못하게 되었죠.

가족과 함께 어둡고 좁은 지하실에서 생활하는 자르갈. 갑자기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쓰러져 혹여나 잘못될까 걱정대 잠시도 옆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딸을 위

해 엄마는 일을 나가야만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약의 가짓수는 늘어가고 엄마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차례 무너졌습니다. 자르갈의 경련과 발작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약복용이 중요하지만, 약값이 매우 비싸고 몽골 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언제 다시 판매될지 몰라 구매할 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해야만 합니다. 엄마는 주방보조일까지 추가하며 홀로 약값을 감당해왔지만, 이마저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 밝고 건강해진 자르갈

### 후원자님 덕분에 다시 학교에 가고 있어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자르갈의 약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고, 자르갈이 빠짐없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3~4회 겪던 발작 증세가 지금은 한 달에 3~4번 가량으로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전에는 증세가 심각해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다시 등교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르갈이 건강을 회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 아동복지팀장 류민현



▲ 자르갈이 학교에서 기절해 병원에 입원했던 모습

## 12살 은영이에게 소리를 선물해주세요

위기가정아동 의료지원 캠페인

### 은영이에게 소리를,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은영이의 청력을 위해 하루 빨리 알맞은 보청기를 마련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생계 유지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의료비까지 감당하려니 부모님의 몸과 마음이 금세 지쳐갑니다.

보청기는 은영이의 청력 소실을 막고,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은영이의 세상이 따뜻한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주세요.



### 청력을 잃어가는 은영이

은영이(가명, 만12세)는 소리를 감지하는 부위의 신경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은영이는 청력을 되찾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청력이 빠르게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알맞은 보청기가 꼭 필요하며, 지속적인 청각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빠의 소득으로 다섯 가족이 생활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얼마전 아빠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경제활동을 해보려 했지만, 손가락 관절염, 빈혈, 저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저혈당쇼크 등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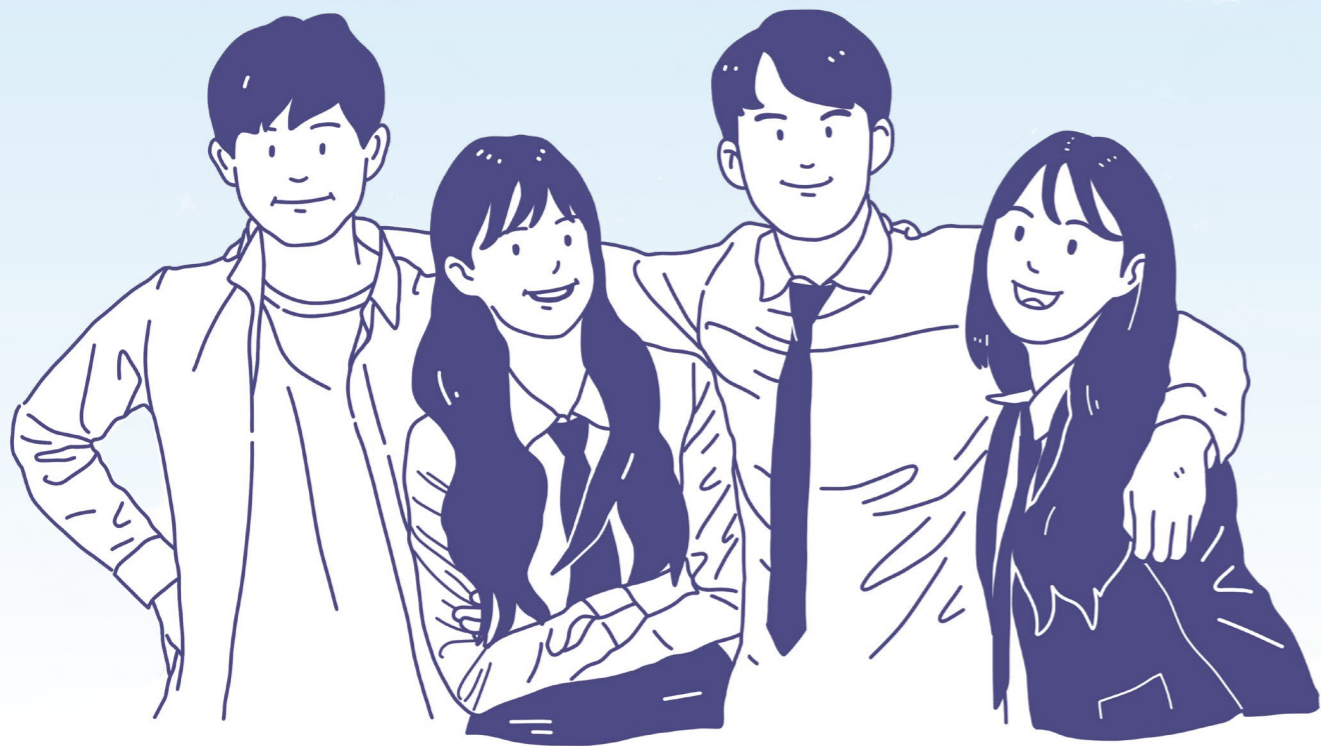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은영이의 보청기 구입비로 우선 지원되며, 이후 은영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의 의료비로 지원됩니다.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 졸업,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요!

국내결연사업 '향기나는 결연, 허브'



결연후원은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육비와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후원자님의 사랑을 느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는데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결연후원을 통해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며 앞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졸업 선물을 준비하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결연후원은 종료되었지만, 그동안 함께한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인 볼펜과 텀블러, 그리고 졸업을 축하하는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득 넣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후원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꼭꼭 눌러 담아 보내왔습니다.



“저를 중학생부터 어엿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후원자님이 응원과 힘이 되어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짧은 글로 전할 수 밖에 없어 아쉽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엄마는 제게 ‘사람은 타인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저 역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본 적이 없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과 피땀 흘려 번 돈을 베푼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려울 때 저에게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을 함께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김지민

## 향기나는 결연, 허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허브(Hub)처럼 향기로운 후원자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연결(Herb)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몽골, 네팔, 캄보디아의 해외 아이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함께 그리는 꿈

시설청소년 예체능 멘토링지원사업 '네 꿈을 응원해'

연수(가명)는 친구들과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7명의 여자아이와 함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연수는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스케치북을 친구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유일한 친구였고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에 대한 열정은 커져만 갔고, 그룹홈 입소 후 미술학원에 다니며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냈고, 이제는 제품디자이너라는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 2월, 시설청소년 예체능 멘토링지원사업 '네 꿈을 응원해'를 통해 연수는 웹디자인회사 '윙윙디자인'의 안유미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수상, 이모티콘 입점 등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 시작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유미 멘토 :** 멘토링을 시작할 때부터 연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1인 디자인 사업을 하는 실무자로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고 생각했죠. 연수는 이미 수상경력이 많아서 포트폴리오 부분을 더 채워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공모전에 도전해보자고 했죠. 연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까지 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연수 멘티 :** 멘토링을 하면서 공모전 수상도 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이모티콘 출시도 했어요. 제가 만든 네이버 블로그용 이모티콘 '칠봉이는 마흔살'이 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을 보며 불안하기도 했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 2021년 경상북도 가치여행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 장려상 수상

**멘토링을 진행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연수 멘티 :** 중학교 때부터 디자이너를 꿈꾸며 미술공부를 시작하였고, 디자인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멘토를 만나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유미 멘토 :** 연수와 진행한 멘토링은 제가 멘티를 이끌어간다고 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작업을 함께하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 많았어요. 1년 동안 함께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연수가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기획을 주도해서 제가 연수의 리드에 따라간 적도 많아요. 1개를 알려주면 2개, 3개를 먼저 해 와서 물어보는 학생이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반성을 한 적이 많아요. 하하.



▲ 안유미 멘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꿈을 응원해' 사업에 함께하는데, 앞으로 멘토링을 통해 진행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안유미 멘토 :** 연수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능력이 너무나도 많은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멘토로서 연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이끌어주고, 확인시켜주며 자신감을 갖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도 연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찾아주고 극대화해서 서로 유익하고 뿌듯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수 멘티 :** 지금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에서는 입시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 공모전 참가나 웹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는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쉬웠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멘토와 함께 웹디자인을 활용하여 나만의 스킬을 향상하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출시해본 이모티콘의 2탄, 3탄도 탄생시키고 싶고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멘토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시설청소년 및 자립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정기



▲ 네이버OGQ마켓에 등록된 이모티콘 '칠봉이는 마흔살'



▲ 연수(가명) 멘티

홀트아동복지회는 2021년부터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청소년 중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지원사업 '네 꿈을 응원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멘티가 일대일 매칭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큰 특징으로, 올해는 멘티 10명과 전문멘토 10명을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생보위-교보 비영리부문 공익활동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선정 지원사업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기술교육 자립지원사업 '런런 챌린지' 성장발표회



'런런 챌린지(Run Learn Challenge)'는 개별 기술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 정서멘토링 등 자립준비청년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명의 '런런 챌린저'들은 2021년 3월부터 10개월간 IT·제조·문화생활·요식서비스 등 기술교육 분야에서 1인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난 1월, 1년 간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한 것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런런 챌린저 친구들은 기술능력 향상 및 관련 자격증 취득, 특수활동 경험 등 각자 10개월간 이룬 성과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전에 할 수 없는 수준의 작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내년의 단단함을 키워 앞으로 나아갈 수 힘을 얻었습니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런런 챌린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런런 챌린저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들었던 시간이었고, 보호종료 이후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나'를 찾고 '가족'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런런 챌린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4명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명은 관련 분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 역시 기술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 경험을 쌓아 나가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있다는 든든함,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심과 여유를 선물한 런런 챌린지는 2022년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도약에 함께합니다.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함께해주세요!

글 아동복지팀 이채영

## 런런 챌린지

'런런 챌린지'는 보호종료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 기술교육 및 기술교육컨설팅, 정서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2021년 10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에 함께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에도 계속됩니다.

## 런런 챌린지 후기 만화



모두 런런 챌린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주는 응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토크콘서트



지난 1월, 보호종료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자립을 앞둔 멘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날' 명예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 선수와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가 참석하고 MC강도현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파랑새 멘티들보다 조금 일찍 자립을 시작한 강한 선수가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시설 안에서 어떻게 꿈을 키워왔는지, 보호종료 이후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공유하면서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어린 시절, 다른 운동선수들은 부모님께서 응원 와주시는데 저는 시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2017년 한겨울에 보육원에서 퇴소했는데, 한 박스도 안되는 짐을 가지고 집도 없이 홀로 세상 밖을 나오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세상에 혼자구나.' 힌도화지에 점 하나 있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어요. 시설퇴소 후 보일러 켜는 방법조차 몰랐으니까요. 처음에 뭘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알아가면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어때?' 이런 말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더 원동력이 되었죠. ”

이어 2부에선 '보호종료 이후의 고민과 궁금증'이라는 주제로 자립을 앞둔 멘티들에게 보호종료 이후의 걱정거리와 고민에 대한 질문을 받아 게스트들과 함께 답을 찾으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설퇴소 당시 오로지 혼자였어요. 처음이라 잘 모를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죠. 일상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멘토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 강한 선수

우리 모두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존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해주세요. - 브라더스키퍼 ”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파랑새4기 멘티들은 “같은 경험을 한 선배들이 진솔하게 경험담을 들려주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격려해주어 힘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자립을 앞둔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건강한 자립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는 파랑새 친구들이 더욱 희망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 바랍니다.

글 아동복지팀 박소현



##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자립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시설청소년을 위한 통합자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명예멘토 강한 선수의 자립이야기는 홀트아동복지회 유튜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loveholt



#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주)행크에듀 송희창 대표



유튜브나 베스트셀러에는 재테크에 관한 소재가 인기인데요. 여전히 로또판매점에 길게 늘어선 줄만 봐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력하고 실행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죠.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부자라는 꿈을 이뤘지만, 돈을 버는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진정한 부자가 된 송희창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부동산&창업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행크에듀 송희창 대표는 2008년부터 재테크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행복재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 사무장'이라는 필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행복재테크는 특히 부동산과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각자의 성과를 활발히 공유하는 장으로, 부자들의 실제 성공담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테크 커뮤니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엑시트 EXIT」,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등 경제도서를 집필하기도 했죠.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송희창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겪으며 스펙을 쌓기 위해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학연수 비용 마련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무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독하게 아낀 덕에 6개월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지만, 정작 어학연수 후 취업을 한 월급쟁이의 삶을 그려보니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취업 대신 재테크에 매진하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과 창업 분야의 일인자가 되었습니다.

송희창 대표는 자신의 부를 이루는 것을 넘어 나눔에서도 적극적 인데요. 그는 '함께 행복해지자'는 의미로 '행복재테크'라는 재테크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커뮤니티 내 '사랑나눔' 게시판을 통해 2015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에 후원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행복재테크에는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재테크를 하며 얻은 수익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개인적인 후원도 좋지만, 커뮤니티가 후원하게 되면 회원들 모두가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후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후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평소 미혼한부모와 입양대기아동에 관심이 있어 바로 사랑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송희창 대표는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후원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개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긴 어렵지만, '후원'이라는 방법을 통하면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이들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하는데, 후원 활동이 좀 더 대중화되었으면 한다는 그가 후원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후원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나 후원금으로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욱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죠. 앞으로 더욱 많은 분이 후원을 통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전략기획팀 우은영

# 여러 손길이 모여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줍니다

재능후원자 '푸른하늘마늘 바느질공방' 오정민 작가

자신의 재능을 뜻깊은 일에 함께 해주는 재능후원자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이 홀트가 진행되는 사업과 만나 빛을 발하고, 대상자에게는 기쁨이 되어 전달됩니다. 서울 합정에 위치한 '푸른하늘마늘 바느질공방' 대표, 오정민 작가는 해외입양아동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능후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고운 색깔의 이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던 날,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 이불을 만들고 있는 오정민 작가

약 20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퇴직과 함께 '바느질'이라는 취미를 갖게 된 오정민 작가. 바느질을 하며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나만의 시간에 심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바느질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바느질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 '공방'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수년전 마스크에서 본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침 홀트아동복지회 본부가 공방 근처에 있어 '인연이다' 싶었다고. 오정민 작가와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한국적 색깔의 고운 이불과 함께 어딜 가셔도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재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 사진출처\_오정민 작가 인스타그램 @1199mini

살아오면서 많은 분에게 나눔을 받았고, 그 덕에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오정민 작가는 나눔 기회가 생긴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오정민 작가와 자원봉사자분들



"저에게 '재능후원'이란 배움과 감동의 연속이에요. 흔쾌히 멀리서 오셔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분들, 수업에 참여했지만 봉사부터 챙기는 수강생들, 재료비라도 보태고 싶다는 지인 분들, 봉사 재료를 산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넣어 주시는 거래처 사장님들, SNS를 통해 돕고 싶다며 연락해주는 SNS 인연들까지. 봉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한 세상임을 몸소 체험합니다."

오정민 작가와 함께한 봉사자들도 재능후원에 함께하며 느낀 소감을 들려주었는데요.

"평소 재능후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이불을 만드는 내내 아이들이 입양 간 후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기도했어요."

"좋아하는 바느질로 뜻깊은 일에 동참하여 뿌듯했고, 아기들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고운 이불을 선물 받아 사용 중인 해외입양가족

"함께 나누면 큰 기쁨이 되지만 실천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의 손길이 모여 고운 이불이 완성되듯이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홀트가 전달하는 사랑도 완성됩니다.

# 입양대기아동을 돕는 희망트리

SKT T다이렉트샵 희망트리 캠페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포를 푸는 연말연시 시즌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 셀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좋은 연말, 많은 분이 더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SKT와 홀트아동복지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바로 '희망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말이죠!

지난 겨울, SKT와 함께 입양대기아동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는 기부 캠페인 '희망트리'를 진행했습니다. SKT는 오랜 기간 '끝전 기부' 형식으로 홀트와 함께 입양대기아동과 위기가정아동들을 위해 기부해 온 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더욱 어려웠던 한 해였던 만큼, 그동안 임직원들과 함께했던 기부에서 더 나아가 고객들과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었죠.

## SKT 희망트리 1

2021년 12월 17일,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 속에 Galaxy Z Flip / Z Fold 3가 런칭되던 날, '희망트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T 다이렉트샵을 통해 Galaxy 신상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의 수만큼 SKT에서 매칭 후원금을 누적하여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와 의료비로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약한 입양대기아동들은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 로타바이러스는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 1회 접종 비용이 비싸 매년 백신 구입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양대기아동에 대해 알리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시점이 아니어서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객도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 가정과 위기가정 아동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응원하는 아이들을 터치하면 기부가 되는 '터치기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약 보름간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90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희망트리' 이벤트 참여하였고, 3천 번에 가까운 '터치기부'도 진행되어 많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 SKT 희망트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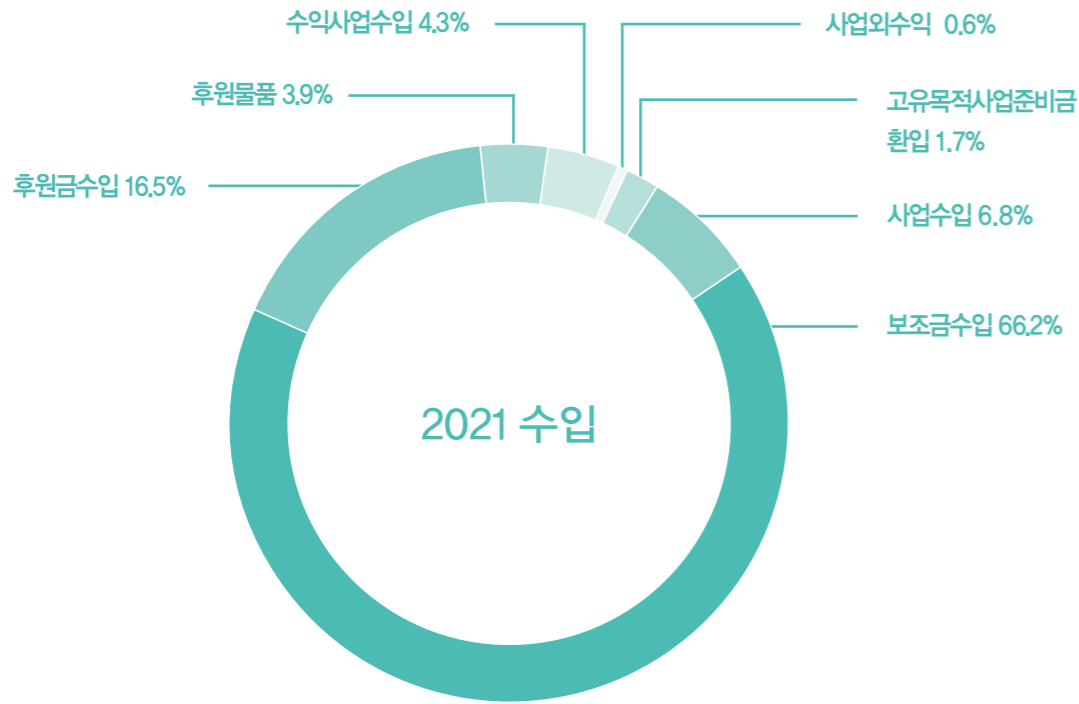


귀 기울여주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준 SKT와 캠페인에 참여한 해준 많은 분들 덕분에 입양대기아동들이 걱정 없이 백신도 접종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트리 캠페인을 통해 입양대기아동을 포함한 위기가정 아동들을 돕기 위해 홀트와 함께 하고 계신 감사한 인연들의 소중한 힘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더 많은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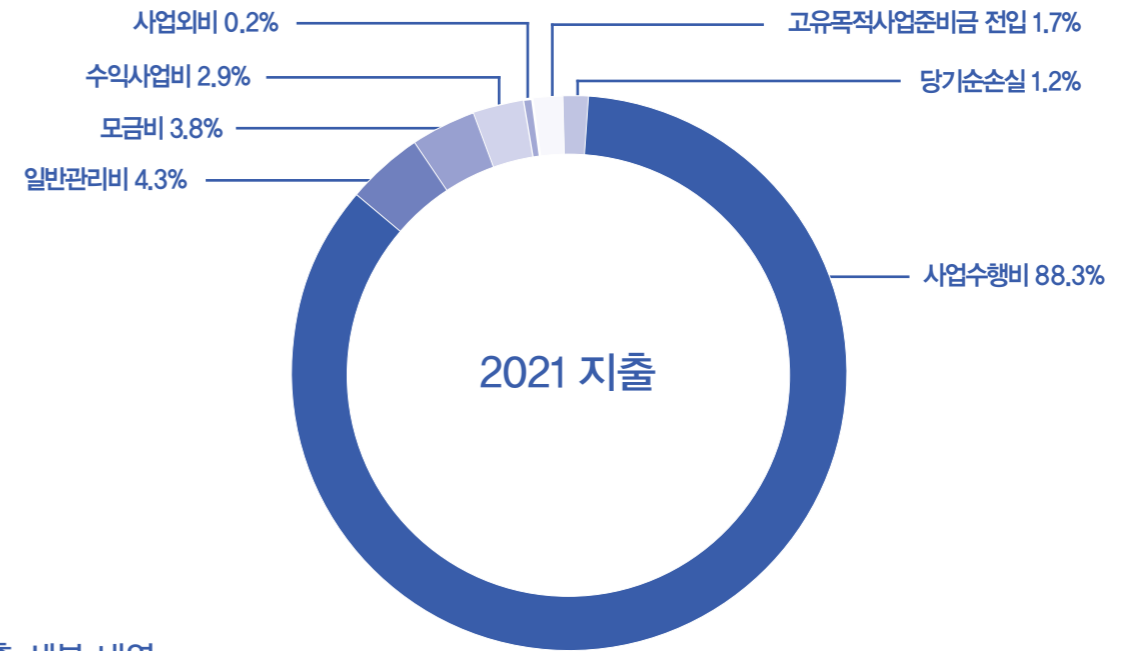
글 나눔기획팀 홍은지

# 2021 운영결산보고



## 수입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b>후원금</b>	개인·기업·단체의 정기 및 일시 후원금	11,944,076,624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모금	9,004,063,773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 치료 등을 위한 모금	1,319,996,319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모금	1,125,766,472	
미혼한부모가족복지	미혼한부모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모금	484,759,060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를 위한 모금	9,491,000	
<b>후원물품</b>	개인·기업의 후원물품	2,836,895,309	
<b>보조금</b>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7,947,494,374	
<b>사업수입</b>	목적 사업 수입	4,916,638,778	
수익사업수입	임대사업 등	3,079,656,654	
사업외수익	이자수입 등	470,547,18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1,245,453,050	
<b>합계</b>		<b>72,440,761,972</b>	



## 지출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b>사업수행비</b>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	63,944,035,579	
아동·청소년복지사업	국내·외 아동, 청소년 양육, 의료, 자립 지원 등 사업비	11,519,807,523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자립, 치료, 재활 지원 등 사업비, 이용시설 사업비	22,940,790,292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관, 심리상담센터 사업비	15,541,746,981	
미혼한부모가족복지사업	미혼한부모가족 생계, 양육, 자립 지원 등 사업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사업비	2,787,522,669	
건강·다문화가정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1,218,971,421	
보육·교육사업	특수학교, 어린이집 사업비	9,935,196,693	
<b>모금비</b>	후원금 모금활동 수행 비용	2,717,343,292	
<b>일반관리비</b>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용	3,143,702,355	
<b>수익사업비</b>	수익사업 운영 비용	2,080,213,715	
<b>사업외비</b>	사업외 기타비용	164,708,683	
<b>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245,453,050	
<b>당기순손실</b>	당기 순손실액	854,694,702	
<b>합계</b>		<b>72,440,761,972</b>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5항(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제50조 3항(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고 있습니다.

· 연회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1년도에는 동남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및 성실한 사업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MC강도현 VOGO스타워즈 우승기념 후원금 전달

미혼한부모가정 글래핑, 저소득아동 캠프 등 우리회 다양한 행사에서 진행을 맡으며 인연을 맺어온 MC강도현이 VOGO스타워즈 우승을 기념하여 1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홀트에 대한 믿음이 이번 후원의 원동력이 되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던 미혼한부모가정과 저소득 아동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 본부

kt cs와 '착한 소상공인 입문 프로젝트' 시행



kt cs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체리콜'을 통해 중소상공인 나눔캠페인 '홀트패밀리샵#'에 1억 원 상당의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국 약 300여 업체당 30만 원 상당의 마케팅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며,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해당 가게나 제품을 체험하고 게재한 SNS 리뷰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엠이이, ㈜디웨이브 자립준비청년 교육 지원사업 5천만 원 후원



㈜엠이이 대표 방은아, ㈜디웨이브 대표 임일석 부부가 평소 어려운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어머니故 조지자님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 5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샘 임직원, 위기가정 아동지원을 위한 '디어 패밀리박스' 전달



100명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디어패밀리박스 북커버 1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더욱 적극 참여하는 사내문화가 되길 소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숨컴퍼니 박영숙 대표, 탐리더스 위원 위촉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감하고 나누는 활동에 앞장서고자 59번째 탐리더스 위원으로 위촉된 박영숙 대표는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탐리더스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고액후원자 모임으로 현재 30명의 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황신영-부가부, 유모차 및 아기침대 기부



프리미엄 스트roller 브랜드 부가부가 개그우먼 황신영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모차와 아기 침대 총 25대를 기부했습니다. 약 3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은 위탁가정과 미혼한부모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배우 하석진 팬들, 생일 기념 위기가정아동 후원

배우 하석진의 일본 팬클럽 'Haseokjin\_J\_palette(하석진 제이 팔레트)'가 3월 12일 하석진의 생일을 기념하여 후원했습니다. 팬들은 작년 하석진이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기부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뜻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배우 이민호 팬클럽, 홀트일산요양원에

물품 후원

배우 이민호 팬클럽 'PROMIZ 민들레 Global Minoz'가 우리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홀트일산요양원에 타월 300장을 후원했습니다. 팬클럽 관계자는 "이민호와 팬들이 함께 만든 기부 플랫폼 PROMIZ(프로미즈)의 8주년과 애플TV+ 드라마 '파친코' 공개를 기념하여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 충청지부

㈜다솔텔레콤과 업무협약체결

SK텔레콤 우수 파트너인 ㈜다솔텔레콤(대표 이용현)과 대전 충청남부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ICT회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휴대폰기기 무상지원 및 6개월간 휴대폰 요금지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나눔캠페인 홀트패밀리#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 대구중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동아리 촛불회 '사랑의 가래떡 나누기'



지역사회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자원봉사동아리 촛불회에서 후원한 50만 원으로 사랑의 가래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후원금으로 구입한 가래떡을 손수 소분하고 포장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10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 운봉중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 쌀나눔 및 장학금 전달식



1월 21일 KNN·넥센월석 문화재단과 설맞이 이웃사랑 쌀 나눔 및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7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백미(20kg) 193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해피패밀리 가족캠프 '대구에서 1박 2일'

2월 12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꿈동이 11가정과 함께 해피패밀리의 힐링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리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가족 힐링캠프는 근대골목투어, 가족사진촬영, 이월드 체험, 호텔 숙박 등 대구를 한껏 즐길 수 있는 1박 2일의 알찬 구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예쁜 추억을 만들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아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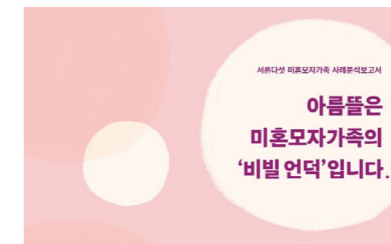
한우리선협, 1천만 원 상당 노트북 후원



대전 한우리선협(이사장 김복수)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미혼한부모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트북 5대를 기증했습니다. 학업과 자립에 필요한 교육용 노트북을 선물 받은 신입생 미혼한부모들은 미래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 아름들

사례분석보고서 발간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름답에서 생활했던 총 35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 배경부터 입소 당시 상황, 입소기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변화, 퇴소 후 생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혼모자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대구클로버

이동학대예방교육

긍정적인 훈육방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양육미혼모의 이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대전클로버

웃이요! 즐거운 설 명절 프로그램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설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대전클로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도 드리고 웃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웃놀이 규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더욱 뿌듯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춘천시가족센터

독서캠프 '동화 속으로' 프로그램

여성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독서논술 교육을 1월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 8회기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독서토론을 접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어휘력, 발표력, 논리적 사고 향상과 더불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희망은 나눌수록 자랍니다

### 국내후원

####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 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 해외후원

#### 해외사업후원

극빈촌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 결연후원

#### 국내 · 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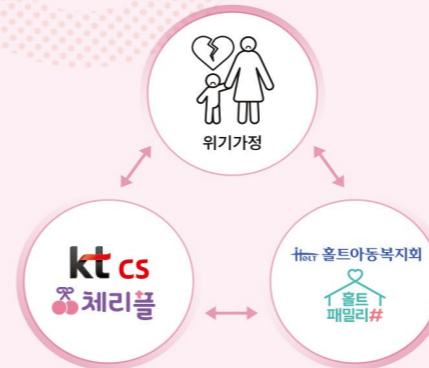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홈페이지 [www.holt.or.kr](http://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 패밀리# 과 체리플이 함께하는

# 홀트 x 체리플 착한 소상공인 입소문 프로젝트



착한 소상공인은 위기가정을 돕고,  
홀트아동복지회와 kt cs는 착한 소상공인을 돕는다!



‘착한 소상공인 입소문 프로젝트’는 kt cs와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하는 착한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홀트패밀리#에게 kt cs의 신개념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착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흥해져서

더 많은 위기가정을 돕는 일석삼조의 프로젝트!

### 혜택 하나



홀트패밀리#에게 체리플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20개의 체리(10명의 인플루언서 홍보)를 무료로 충전해 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혜택 둘



홀트패밀리#은 무료 체리를 모두 소모한 후 추가 진행을 원하실 경우 20% 할인된 가격으로 체리 충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oltshop.or.kr/cherrypl](http://holtshop.or.kr/cherrypl)  
문의 나눔기획팀 02-331-7147

시선을 뒤집으면  
엄마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미혼한부모 후원 캠페인

MOM is WOW



카메라로 스캔하여  
캠페인 확인하기